

해남, 서민 생활물가 안정화 총력

설 성수품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내일까지 운영

소상공인 경영안정 신속 집행...내수회복 지원

해남군이 설 연휴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경제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26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설 명절 대비 성수품 수급 불안과 최저임금 인상 후 일부 서비스 품목 가격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서민생활 밀접품목 가격 집중 관리를 위

해 설 성수품 중점관리 32개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 조사와 함께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담합이나 부당 요금 인상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분야별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

해 18억7,900만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12종 사업에 대해 신속한 집행에 나서고, 내수회복 조치로 해남사랑상품권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3종의 소상공인 경영 강화 및 확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점포경영개선’ 사업은 4억원을 투입, 관내 소상공인 150개소에 전문가 컨설팅, 점포환경 개선, 홍보물 제작 등에 점포별 2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 모집은 2·3월 사이에 진행할 예정이다. ‘가업 승계·확장’ 사업은 주소를 두고

(조)부모의 가업을 승계 또는 확장하길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10개소를 선정하여 컨설팅과 시설(인테리어 개선, 홍보물품 제작,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한다. 총 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온라인 마케팅 홍보지원’ 사업은 업체에서 중개플랫폼, 오픈마켓 등을 이용하는 수수료에 대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특별보증 3종 패키지 지원사업에 7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해남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 대출, 대출이자, 보증 수수료를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해남

지점)에서 우선 상담 후 요건에 부합될 경우 대출은 최대 3,000만원 이내, 대출이자 3.4% 확정 이자에 군에서는 3.0%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은 나머지 0.4%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보증에 따른 수수료 또한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군이 전액 지원함에 따라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뒀다. 희망가득 지원사업 5종도 추진한다. 올해 전남도와 함께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과 ‘e-모빌리티 리스료’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소상공인 위기 대응과 친환경 사업장 조성을 뒷받침 한다. 카드상품권 가입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지원’과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료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비 지원으로 상생과 협력사업도 꾸

준히 모색할 방침이다. 여기에 해남군은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배달수수료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비대면 배달주문 증가에 따른 배달수수료 지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체당 최대 500건까지 배달수수료를 지원한다. 또한, 전국 군 단위 최대 규모 발행·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해남사랑상품권’ 사업은 국비 40억원을 확보해 10% 할인 특별행사로 연간 770억원 판매가 가능해졌다. 군은 올해 정책발행분 100억원을 포함, 총 1,300억원을 상품권을 발행, 판매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서민·취약계층 중심으로 가중되는 민생경제 어려움과 소상공인 등의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태대 기자

김종식 목포시장, 설 대비 방역상황 점검

전통시장 등 방문...안전한 명절 보내기 당부



김종식 목포시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복지시설을 찾아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김종식 목포시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복지시설을 찾아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 시장은 전통시장이 대목인 명절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맞고, 상인들의 방역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난 25일 중앙식료시장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전통시장 7개소와 공판장, 도매시장 등을 방문한다. 특히 26일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열리고 있는 청호시장을 찾아 명절 경기를 살펴보고, 다중이용시설인 목포연안여객터미널로 이동해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김 시장은 임시 선별검사소가 설치된 실내체육관을 찾아 PCR 및 자가진단키트 검사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김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25일에는 목포장애인요양원, 자혜요양원, 자혜요양원, 목포아동원, 공생재활원, 성덕원 등 사회복지시설 6개소를 방문해 방역 상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진도 황금봉 농가가 제철을 맞은 고품질 황금봉 출하를 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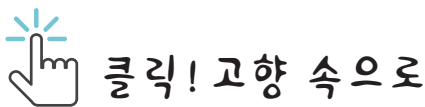
“진도산 ‘황금봉’ 깊은 맛 즐기세요”

과즙·비타민C 풍부...전국서 주문 잇따라

제철을 맞은 고품질 진도 황금봉 출하가 한창이다. 26일 진도군에 따르면 한라봉의 신 품종인 진도 황금봉은 속이 빈틈 없이 딱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퇴비를 사용해 재배한 무농약 과일이다. 진도군은 당도 13브릭스 이상, 일정 크기 이상 규격 과일만을 출하하도록 해 품질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과즙과 비타민C가 풍부하고, 식감이 좋아 전

국에서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 직거래 등을 통해 2만 8,000원(3kg), 4만 8,000원(5kg) 박스 포장으로 활발히 판매되고 있다. 올해는 약 50톤을 생산해 10여여원의 농가 소득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진도군의 대표 특산물인 진도 대파보다 황금봉의 재배 면적당 소득이 높아 재배가 시작됐으며, 특히 다른 지역보다 연간 1,200여 시간 많은 일조량과 적

당한 강수량, 해양성 기후를 자랑한다. 또 토양이 비옥해 최근 수확된 황금봉의 당도가 13~15브릭스로 지난 2008년 1개 농가(0.08ha)를 시작으로 현재 23개 농가(5ha)로 늘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진도 황금봉은 청정지역의 따뜻한 바닷바람, 깨끗한 물과 땅에서 생산돼 한번 맛을 보면 깊은 맛과 향에 꼭 다시 찾게 된다”며 “고품질의 진도 황금봉을 재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목포해경, 선박 화재사고 합동 진화훈련

목포해양경찰서는 최근 목포시 동명항 내에서 목포소방서, 민간해양구조대와 함께 합동으로 선박 화재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훈련은 항내 밀집 계류된 선박에 모의 화재 상황을 부여하고 ▲화재 신고 접수 및 상황전파 ▲초기진화 ▲선박 분리 및 이동 ▲선박 화재 진압 ▲훈련 강령 순으로 진행됐다. /목포=김동균 기자



완도장애인복지관, 원예키트 전달

완도군장애인복지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휴관으로 예정돼 있었던 원예교실 수업을 원예키트로 대체해 서비스 이용인 가정에서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원예키트 전달 및 제작법을 교육해 이용인들이 가정에서 손쉽게 원예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코로나 방역수칙을 설명하고, /완도=최규옥 기자



LG생활건강, 강진군에 후원물품 기탁

LG생활건강과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이 공동으로 설 명절을 맞아 ‘(사)희망나누는 사람들’을 통해 강진 지역 내 어려운 농어민들 위해 1억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 26일 기탁된 후원물품은 화장품, 린스, 바디워시, 물티슈, 마스크 등으로 구성된 생활용품 12종으로 각 읍·면 복지팀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김정안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물품이 잘 전달돼 마음에 위안이 되고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미자 부군수는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후원해 주신 물품이 설 명절 이웃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강진=한태선 기자